광주시, 사회통합 실현 힘 모은다

시의회·국민통합위와 업무협약
통합위 광주지역협의회 공식 출범
1차 회의…AI혁신거점 구축 논의

강기정 광주시장이 1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광주지역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하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이귀순 광주시의회 제2부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광주시와 시의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통합에 힘을 모은다.

광주시는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의회, 국민통합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통합위원회 광주지역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원회 광주지역협의회 위원으로 23명이 위촉됐으며, 국민통합위원회와 광주시 간 소통과 지역 현장 중심의 국민통합 실현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귀순 광주시의회 부의장, 국민통합위원회 광주지역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국민통합위원회 광주지역협의회 공식 출범과 함께 제1차 회의도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국가인공지능(AI) 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광주지역 이주민·외국인 주민 정책환경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민주화와 인권의 도시 광주는 대구 달빛동맹, 전국 최초 고려인 주민조례 제정 등 국민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말했듯, 광주가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진정한 국민통합이 실현될 수 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민주주의의 도시답게 세계로 나가는 포용의 도시가 되고자 한다"며 "80년 5월 고립됐던 광주는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 700명이 살고 있는 일명 '환대의 마을'인 고려인 마을이 있는 자부심을 가진 도시가 됐다. 앞으로도 다양성을 존중하며 열린 광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18 술판 김광진 부시장, 광주시민에 공개 사과하라"

경실련, 美 출장 귀국했지만 입장표명 없어…강시장 인사조치 촉구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시장에게 43주년 5·18민중항쟁 전야제가 진행중임에도 식당에서 술을 마신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5월 23일자 광주일보 2면〉에 대한 인사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김 부시장이 광주시민에게 공개 사과할 것도 요구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성명서를 통해 "김 부시장은 5·18 전야제가 열린 당시 술판을 벌였음에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김 부시장의 술판 사건이 발생한지 오늘로 16일째고,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지 7일이 지나고 연휴가 끝난 지 3일이나 지났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며 "묵묵부답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며 광주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김 부시장의 '술판 사건'을 두고, 지난 2000년 5월 17일 옛 전남도청 인근에서 당시 386 정치인들이 '새천년NHK' 단란주점에서 술판을 벌인 사건과 동일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경실련은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안일한 생각"이라면서 "김 부시장뿐 아니라 강 시장도 술판이 벌어진 그날의 정확한 사유를 광주시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임명권자인 강기정 시장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김 부시장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적절한 인사조치를 바로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시장은 지난달 17일 전야제 행사 당시 옛 전남도청 인근 식당에서 광주시청 공직자 10여 명과 함께 법인카드로 술판을 벌여 논란이 됐다. 5·18 당일인 지난달 18일 김 부시장은 모빌리티 선진 사례 견학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고 같은 달 26일 귀국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경력개발 돕는다

전남광역새일센터, 커리어 설계 등 생애주기 프로그램 운영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결혼, 출산, 육아와 가족돌봄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의 생애주기를 이해하고, 재취업을 하는 여성의 주도적 경력 개발을 위한 '생애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육아와 가족돌봄 등으로 고용 유지가 어려운 재직여성, 출산 후 경력이 단절돼 다시 취업에 도전할 용기가 없는 구직여성에게 경력개발과 경력유지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생애주기 프로그램은 ▲여성 직장인으로서 성공적 경력개발 및 강점 탐색, ▲소중한 나의 모든 인생과 주도적 커리어 설계 ▲성공적 직장 복귀 기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1일 육아로 인해 직장생활이 단절됐던 장성 지역 구직여성들에게 재취업을 위한 '경력 탐색과 커리어 로드맵 그리기 교육'을 운영했다. 앞서 지난 4월엔 장흥과 고흥 지역 재직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직장인으로서 성공적인 경력개발 워크숍'을 진행했다.

전남광역새일센터는 앞으로도 전남 22개 시·군에 직접 찾아가 구직·재직여성에게 지속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전남의 중장년 인구 증가에 맞춰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중장년 여성의 경력개발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일하는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계속해서 경력을 유지하고 개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전투기 연료 인체 영향 없다"

군공항 이전 반대단체 허위 주장 반박…이전 지역 생산유발 5조

전남도가 최근 무안지역 군 공항 이전 반대 단체에서 주장하는 전투기 연료의 발암물질 성분에 대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지역개발 효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산·취업 유발효과가 매우 크다고 반박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전남 서남권 발전을 위해 '광주 민간·군 공항 동시 이전'을 선언한 이후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을 반대하는 삼향읍 번영회'에서 '전투기 연료에 발암물질과 신경독 성분이 들어 있는 거 아시나요?'라는 현수막을 걸어 도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군본부 측에서는 "전투기 항공유(JP-8)는 민항기에서 사용하는 항공유(JA-1)인 등유에 부식 억제제와 방빙제가 첨가제로 추가된다"며 "전투기는 민항기보다 임무 고도가 높고 연료도 완전 연소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도가 정유회사에서 발표한 구성성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삼향읍 번영회에서 주장하는 전투기 연료 발암물질 등은 미량 함유돼 인체에 영향이 없으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에도 포함된 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최근 전남사회단체연합회 주최 군 공항 관련 강연 참석자에게 배포한 전단지에 '전투비행장은 생산, 소비시설 아니어서 고용효과 및 지역개발 효과가 없다'고 한 주장도 일축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6년 광주시가 국방부에 제출해 승인받은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교통연구원이 '광주 군 공항 이전지역에 생산 5조1000억원, 부가가치 1조8000억원, 취업 3만8000명 유발효과가 있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사회단체연합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그동안 반대만 하던 광주군 공항 이전에 대해, 전남도의 미래 100년의 발전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민간·군 통합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관광지 예약·결제·맞춤형 안내 한 번에

7월부터 '전남관광플랫폼' 운영

오는 7월부터 전남 22개 시·군 관광지 내 교통·숙박·식당·체험시설 등을 한 번에 예약·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전남관광플랫폼(J-TaaS·Jeonnam Travel as a Service)을 22개 시·군에 확대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6월 한 달 동안 운영하는 사전 체험이벤트는 가입자 4000명에게 커피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또 플랫폼을 통해 상품 구매 후기를 남긴 이용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20만~3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사전 체험이벤트'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남관광플랫폼(J-TaaS)'을 내려받아 참여할 수 있다. '전남관광플랫폼'은 지난해 3월 전남도와 5개 민간 연합체(컨소시엄)가 협력해 교통·숙박·식당·체험시설 등 전남 관광 모든 영역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모바일 기반 스마트관광 플랫폼이다.

실시간 예약 및 결제서비스는 물론, 이를 통합 연계해 이용자 관점의 빠르고 편리한 맞춤형 스마트관광 편의를 제공한다. 전남관광플랫폼 이용자는 추천 여행코스·관광지·축제 등 전남의 다양한 관광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대중교통·숙박·맛집 등 각각 다른 분야 상품을 한 번에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까지 할 수 있어 하나의 플랫폼만으로 전남의 모든 관광 분야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번체·간체) 등 다국어 서비스도 지원해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강화했다.

전남관광플랫폼은 지난 2월 6개 시·군 대상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5월부턴 전 시군으로 확대해 서비스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 미비점을 보완해 7월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3일 '광주시민회관 청년 Forest 971 플리마켓' 개최

광주시는 "3일 오후 2시부터 밤 8시까지 광주시민회관 일원에서 '광주시민회관 Forest(포레스트)971 플리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민회관 Forest971(포레스트) 플리마켓'은 지역 청년소상공인의 상품 판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분기별로 개최하는 행사다. 지난 4월 열린 플리마켓에는 청년소상공인 34개팀이 참여했으며, 3000여명이 넘는 시민이 방문했다.

이번 플리마켓에선 규모를 확대해 푸드트럭을 포함한 먹거리 부스 7개, 가족·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부스 18개, 다양한 패션 소품·액세서리 판매부스 25개 등 총 50개팀의 청년소상공인이 참여하며, 지역 소상공인 상품 판매와 함께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광주시민회관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된 청년창업자 6개팀도 참여한다.

또 플리마켓을 찾는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킹 공연이 마련됐으며, 현장 이벤트를 통해 컵홀더 튜브, 네트백 등 다양한 소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중 앙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신 용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월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2,447㎡ (740평)
- 경관 좋음. 별장형 빌라 등 가능. 숙박시설가능
- 매도 7억7천만원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산 약 3,223㎡ (4,000평선)
- 전원주택단지 좋음. 은행 2억 매도 12억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접 땅 4,650㎡ (1,406평)
-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1,735㎡ (524평)
- 컨테이너 있고 공시가 3,740만원 매도 7,5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7천 (평당 11,822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3년 6월 1일 주주서면특별결의서로 자본의 총액 금850,000,000원을 금650,000,000원으로 감소하기로 하고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20,000주를 유상소각하여 보통주식 85,000주를 65,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 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서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3년 6월 2일

주식회사 에프에이이
광양시 옥곡면 신금로 241
대표이사 김 종 효

판 결 공 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2고정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 피고인 : 신민서

위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3년 6월 1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하 종 민

산행안내

6월3일(토)

▲**광주호산회** 6월 3일(토) 〈옥천 대청호 부소담악, 미르정원길 트레킹〉오전 06시 30분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7시 롯데백화점 07시 15분 예술회관후문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